

##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2024 33 기 노무사 생유에 합격수기

#전업 수험생#인터넷 강의#기출회독#단원화#멘탈관리#전업 수험생#인터넷 강의#기출회독#단원화#멘탈관리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전업 수험생활을 1년동안 하면서 평균적인 공부시간은 7~8시간정도 인거 같습니다. 11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7시간, 10시간 이런식으로 매일 들쭉날쭉 달랐습니다. 워낙 게으르고 의지박약이라서 늦잠자기 일쑤였고 계획은 매일 다시짚습니다.. 매일 꾸준히 10~11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난 왜 저렇게 못할까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거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에는 내가 눈으로 멍하니 책을 보고만 있는지, 진짜 머릿속에 넣으면서 확실히 기억속에 내용을 덧칠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공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밥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에 머릿속으로 암기내용을 습관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1) 노동법 (김에스더) - 62.5점 1차 노동법 강의에 만족이 커서 에스더샘을 선택했습니다. 2차 노동법 역시 깔끔한 설명으로 강의 수강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목 특성상 노동법은 양이 너무 많고 저는 특히 노동법 판례가 세세하게 요소 등을 암기해야할 것이 많아서 암기가 힘들었습니다. 0기부터 판례 두문자를 따기는 했지만 양이 너무 많고 자꾸 까먹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어느정도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샘 진도 부분을 복습하면서 몇 페이지씩 회독후 타이핑 해보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까먹고 시험 직전까지도 암기가 덜된거 같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치만 에스더샘 모의고사나 사례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안의 논점(문제의 소재)와 포섭에 강점을 두

고 최대한 풍부하게 녹여낸다면 판례 암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판례에서 어떤 요소 하나가 누락되었다, 판례와 조사나 문장 순서가 다르다 등등의 세세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합격할 사람을 탈락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풀어내어 읽는 자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례에 적용하여 풀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샘은 그런 측면에서 과한 생암기(?)를 중시하시기 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되 사안에서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적용하며 풀어나가는지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저랑 맞았던 것 같습니다. 타강사님 수강생들이 판례의 조사 하나하나를 똑같이 암기하고, 판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풍부하게 암기하는 것을 보며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치러본 결과,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암기해서 적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암기가 복사기 수준이 아니고 다소 엉성하더라도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사안을 확실히 적용하며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풀어나가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에스더샘 모의답안 목차가 되게 간단하고 목차 암기를 강조하지 않으시는데, 이번 시험에서 저도 목차를 제맘대로 생각나는대로 썼는데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답안은 목차가 정해져 있거나 암기해야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였으면 이 사안에서 쟁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순서대로 쟁점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흐름이 파악될 것이고, 그 흐름에 맞게 목차를 자유롭게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인사 (최중락) - 58점 경영학과 졸업했지만 경영학을 너무 싫어해서 인사가 가장 싫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외워졌던 거 같고, 결국 답은 회독을 늘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서 회독에 집중했습니다. gs0,1기 때 회독 속도는 최중락 강사님 책 기준으로 (하루종일 10시간동안 인사 책만 봤다는 전제하에) 5일 정도 걸리는 속도였습니다. 10회독 넘게 되었을 때 조금 회독속도가 늘기 시작했고 3기 종강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겨우 하루 10시간 정도에 1회독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내심 가지고 회독하다보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현출도 그만큼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목보다 인사과목은 개인적으로 모의고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현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연습용으로만 모의고사를 활용했고 따로 첨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김광수) - 65점 법전공이 아니라 다소 어렵고 생소한 과목이었지만 가

장 재밌게 공부한 과목입니다. 광수샘이 재미있게 강의해주시고, 이해가 되면 암기가 휘발되는 속도가 타 과목보다는 느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할 양은 타과목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지만 암기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덜 했던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법학과목 전반적으로 풀이방법 등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수샘의 사례풀이 방식으로 공부하다보면 노동법, 행정쟁송법 사례풀이 하는 데 있어서도 더 깔끔하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글 전체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과목이 싫고 안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강추합니다.

## ■ 면접 준비 과정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면접 준비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안에 취약하다면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게된 계기나 하고싶은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씩 생각해 보고, 노동법 서브노트 1회독 정도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히 대답하지 못해도 면접관님들께서 정답을 유도해주시거나 긴장해서 생각이 안나는 것에 동감해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 면접결과를 대기하면서 불안할 수도 있으니 노동법 서브 1회독을 추천드립니다. 꼼꼼하게 회독하지 않더라도 그냥 면접당일 바로 전날에 빠르게 1회독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천성이 게으른 탓에 일찍 기상하여 루틴대로 생활하고 기계적으로 스터디카페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계획대로 하루를 보낸적이 손에 꼽은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살았다고 해서 편했다기 보다는 게으른 나자신을 탓하며 침대에 축 처져있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괴로웠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게으른 분들은 최대한 대면 출석스터디나 기상인증스터디 등을 추천 드립니다. 각종 스터디를 해도 편법으로 게으름을 피우긴 했지만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더 게을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남들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시간에 더 집중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부시간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공부시간,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합불에서 또 중요한 요소로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의〈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내가 공부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채점하는 교수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간절함과 자신감이 답안지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2차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세세한 암기 어느 글자를 안썼나만 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제3자, 특히 박학다식하다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보았을 때 논리적이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보이는가에 중점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당일에 모든 행운과 기운이 나에게 왔다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바를 처절하게 답안지에 담아내면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